

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오 승 통
편집인 : 박 상 호

3. 3인초청
특별좌담회

4. 지금은 기도할 때

7. 예수님을 닮은 교회
(꿈이 있는 교회)

9. 믿는이의 질병

www.holycity.or.kr

2004년 10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 71 호

깨끗한 도시 거룩한 도시

춘천을 통해 강원도와 이 민족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성시화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운동이다. 이 성시화에 대한 꿈을 안고 지금까지 밀알처럼 이 땅에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다. 일일이 이름을 거명할 수도 없을 많은 분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이 지금, 성시화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도록 불을 붙이고 있다.

이번 2004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는 여러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먼저 말씀을 통한 심령의 변화 및 영적 회복이다. 이를 위해 집례 교신학대학장 출신의 존경받는 피영민 목사의 열강으로 3일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 말씀을 전하여 주시게 된다. 또한 지도자 세미나와 성시포럼을 통한 성시화의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뛰어넘어 특별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이를 특징별로 분류해 보면,

1. 이번 선교대회는 기도행전이 될 것이다.

중보기도를 위해 목회사들과 뜻있는 기도의 응사자들이 헌신을 하게 되는데 집회기간 내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춘천 성시화를 위한 기도의 간절하고 뜨거운 영적제사가 드리질 것이다.

2. 모든 문화적 역량이 동원된 집회가 될 것이다. 기독교 미술대전, 찬양경연대회, 각 교회의 성가발표회 및 장학금 전달, 청소년 찬양제, 각 교단별 체육대회 등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적 행사들이 함께 모이는 영적 축제가 될 것이다.

3. 깨끗한 춘천 만들기 운동의 효시가 될 것이다. 9일 토요일 오전 6시 30분 자기교회주변을 청소한 모든 성도들이 성시화선교대회 티셔츠를 입고, 공지천 조각공원에 모두 집결하여 춘천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이를 통하여 깨끗한 춘천을 만드는 실제적인 모임으로, 추후에는 깨끗한 춘천만들기운동을 두어 지속적인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4. 시민과 함께 더 큰 비전을 위한 시작이다.

교단별 체육대회는 내년엔 일반조기축구회를 초청, 모든 시민운동으로 발전시키며 바자회도 전교회가 모두 동참하는 명실공히 아름다운 장터로 변화될 것이다. 더불어 깨끗한 춘천 만들기 대회도 더욱 발전되어 모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춘천의 대표적 운동이 되도록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총동원령을 내리고 함께 협력하여 주신다면 이 대회는 춘천을 움직일 것이고, 움직이는 춘천을 통해 강원도와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글/ 편집부)



2004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

3일(일) 4일(월) 5일(화) 6일(수) 7일(목) 8일(금) 9일(토)

연합 새벽 예배(새벽 5:00)

강사: 피영민 목사
동부장로교회

리더쉽 세미나(오전 10:00)

강사: 피영민 목사
동부장로교회
목회자/장로

성시화 포럼

(오전 10:00)
동부장로교회

* 중보기도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동부장로교회에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춘천순복음교회에서
24시간 중보기도가 진행.

춘천기독교인 미술대전
동부장로교회



2004 성시화 춘천선교대회(저녁 7:00)

신교 부흥회
강사: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장소: 동부장로교회

복음성가제

(저녁 7:00)
지장선교회
석사감리교회

전략적기도회

(저녁 9:00)
순복음 춘천교회

종합행사

- ① 바자회(오전 10시)
- ② 천선축구대회(오전 9시)
- ③ 깨끗한춘천만들기(오전 10시)
- 각 교회에서
광지천조각공원으로
공동행사장소:
종합운동장
- ④ 청소년 찬양축제(오후 5시)
장소: 중앙성령교회

제18회춘천연합찬양축제

(저녁 7:00)
주관: 월드비전
장소: 분화에울린

나침반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이달의 말씀

사도행전 [ACTS]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

· 2004 성시화 춘천선교대회

불같은 성령의 부흥이,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되게 하소서. 행사를 준비하는 각 기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 나라를 위한 특별기도

미국대선과 맞물린 북한의 문제로 인한 전쟁의 위기 에스더와 같은 중보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 2010 세계제2차대회유치

춘천이 이를 통해 세계의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소서.

· 성시신문 창간7주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어난 성시운동의 햇불, 지금까지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 인도 비하르 목회자 단기선교팀

11월에 있는 선교여행을 통해 가나안 농군학교의 기쁨이 마련되고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소서.

CBS 춘천방송

www.chcbs.co.kr 93.7 MHz

신앙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 한시당(1만원) · 배시당(2만원) · 농시당(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농협 240-01-078120
☎ 254-7214 주: 통 515-01-038052
우체국 400022-01-001322
예금주 월드비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보낼곳: (우)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 256, 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춘천은 반드시 성시화 되어야 한다.

춘천은 지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있는 도시임에 틀림이 없다.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춘천은 서쪽 서울과 함께 한반도의 허리라 볼 수 있는 동쪽의 내륙 한가운데 자리한 노론자위의 땅이다.



이 도시의 기원은 고고학적으로 유물의 출토로 미루어 신석기 시대부터로 추정하고 있다.

고대에는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예족과 백족, 두 종족 중의 하나인 백족에 의하여 형성된 백국이라는 이름의 고대 서울 즉 도읍지였다. 백족은 기마를 잘 다루는 종족으로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를 보면 203년 백족(百族)의 기병이 한(漢)을 도와 초(楚)를 공격했던 기록이 나와 있고, 111년에는 고구려, 예맥과 함께 현도를 공격했던 기록도 있다.

백국은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3국 국경의 완충 지역에 위치하면서 마치 스위스와 같은 중립적 국가로서의 역할로서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는 도시국가로 형성하고 있다가 637년 신라에 귀속되면서 이름이 우수주(牛首州)라 개칭하여 군주(君主)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백국의 도읍지는 지금의 춘천시 북쪽 소양강(昭陽江) 북안(北岸)에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믿을 만한 유적(遺蹟)이 교동(校洞) 봉의산(鳳儀山)과 의암호(衣岩湖) 가운데 있는 섬인 중도(中島)와 석사동(碩士洞)·온의동(溫衣洞) 등지에 남아 있다. 그리고 후에 춘천은 몽고항쟁의 터전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 봉의산정에 남아 있으며, 구한말 항일투쟁 중 유명한 을사의병의 주인공으로 전국의병대장을 지낸 의암 유인석이 태어난 고장이고, 이곳의 이소응과 함께 쟁쟁한 항일투쟁의 역사가 남아있는 충절의 고장이기도 하다.

더욱 1950년 한국전쟁의 초기에 놀라운 첫 승전보를 전하며 한국전쟁의 전환기가 되게 하였던 춘천전투의 의미는 한국의 현대사의 역사를 바꿀 만큼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전투로 북한군은 두개의 사단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후에 7사단은 12사단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그 승리로 인해 국군은 사기를 찾게 되었으며 3월 동안의 지연은 북한의 남한정복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왔다. 또 유엔군이 개입할 수 있는 황금같은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전투가 춘천전투로 가히 혹자는 춘천 대첩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지금도 북한에는 7사단이란 이름의 군대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이 도시는 단순한 산천의 수려함과 아름다움만이 아닌 학덕을 겸비한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고, 또 그들의 발길이 머물렀던 곳이며, 나라의 위기 때마다 전환기를 주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도시임을 알게 된다.

지금의 춘천은 백국의 성지와 일컬어지는 삼악산과 봉황이 내려왔다는 봉의산, 그리고 소양강 등이 여러 명승과 함께 어우러져 자연의 자태를 한껏 뽐내는 멋진 호반의 도시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의 상수원이 위치한 곳이어서 산업용 개

발할 수 없고 교통이 불편한 내륙에 속해 있기에 점점 낙후성을 피해갈 수 없는 가슴 아픈 실정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청정 무공해 도시·관광 문화의 도시·체육의 도시로서 탈바꿈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타 도시들도 비슷한 슬로건을 가졌기에 특별한 차별화를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서있는 것이다.

만일 이대로 계속하여 간다면 차후 도청도 다른 도시로 옮겨 갈 수도 있고, 군인과 특히 미군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도시의 발전도 자연 더욱 느릴 수도 있으며 오히려 더욱 낙후될 수도 있다는 위기적인 진단도 받고 있다.

게다가 이혼율이 전국 2위이고, 어느 곳보다 술집과 유흥업소가 아주 많은 소비위주의 도시

로서 도덕적으로도 정말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를 어느 도시보다도 많이 안고 있는 불운의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춘천은 그 정기 속에 평화와 안정을 이루며 백국의 수도를 이루던 지력이 있다.

이제 다시 한국의 평화의 도시로서의 탈바꿈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춘천은 30년 전 성시화의 푸른 꿈을 잉태하였던 비전을 품은 믿음의 밀알이 뿌려진 도시이다. 이제 이 성시화를 통한 열매를 맺으며 진정한 변화를 이룬다면 춘천은 전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과 꿈의 도시로 부각 될 수 있다.

한국은 성시화의 꿈을 통한 민족복음화운동이 정착하며 25%의 큰 부흥을 이루었다. 이제 다시 새로운 개념의 성경적 복음화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래서 춘천시정이 변화되고 교육과 문화의 체계가 새로워져서 깨끗한 도시 거룩한 도시로서의 변모를 이루게 된다면, 온 세계는 한국의 춘천을 동양의 갈릴리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복음적인 문화를 양산하고 기도와 찬양의 도시가 되게 하며 성시화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들이 형성되고, 선교를 위한 전력과 선교사들의 섬터가 만들어지고, 예비신교인들의 헌신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도시, 생명의 도시가 되어 움직이게 된다면 분명 춘천의 복음의 성지처럼 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 번 고대로부터 내려온 평화의 도시로서의 면모에 복음적 세계관으로 변화된 성시의 도시는 전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가나안적 모델을 볼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춘천은 그 어느 도시도 흉내 낼 수 없는 아니 흉내 내고 싶어할 내적으로는 경제·정치적인 안정감과 앞선 밝은 문화와 푸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생명의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성시화를 위해 마음을 드려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글/ 조영춘 목사



기독교 광장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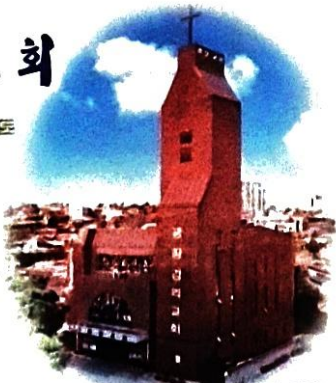
대한감리회

오직하나님으로



원기배 목사

강통 있는 예배
능력 있는 기도
생명 있는 말씀
치유 받는 영혼
성령 충만한 삶
섬김 있는 사랑



200-092 강원도 춘천시 호지2동 649번지 ☎ 254-1379, 254-7462

앳투어

ntours

대표 김지현 집사 (춘천동부교회)

(011-9057-3946)

TEL: 244-7400

도청 밑에 위치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외 여행 알선 (수학·졸업 여행)
- 배낭여행·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급
- 해외선교 후원

3人 초청 특별좌담회

성시화운동, 21세기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본 글은 지난 9월 24일(금) 성시화를 위한 선교대회준비를 위한 금요철이기도회(장소:중앙강리교회) 초청강사로 오신 전용태, 양인평, 이범찬 장로 세분이 동석하여 성시화운동에 헌신해 오셨던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토론했던 좌담회 내용입니다.

•전용태(전 춘천지경장), 양인평(전 춘천법원장), 이범찬 장로님(전 국정원 춘천지부장)은 96년 춘천성시화본부가 상설기관으로 창립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기여와 헌신을 하셨습니다.

조영춘: 하나님께서 성시화운동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장로님들을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성시화운동본부 일을 맡으면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춘천성시화운동이 제도화하는데 쓰임을 받으셨던 3분의 장로님들과의 대화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춘천에 오셔서 성시화운동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던 계기와 배경, 성시화운동의 확산과정과 향후 성시화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 제가 춘천성시화운동에 헌신하게 되기까지 3번에 걸쳐 관련을 맺었습니다. 맨 처음은 1972년도에 대학생선교회 총재셨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민족복음화 운동으로 성시화운동을 주창하셨을 때 성시화집회에 참여한 일입니다. 그 후 1991년도 춘천에 차장검사로 부임했었는데, 제 아내와 춘천으로 발령받은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춘천으로 보내신 것은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장검사로 열심히 근무하면서 성시화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검사장이었던 김기수 검사장님을 중심으로 경찰서장님, 2군단장님 등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기관장모임보다는 직장신우회가 아주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춘천에서 직장신우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약 800명 정도의 직장신우회 회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995년 춘천 검사장으로 다시 부임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시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난소암으로 투병중일 때, 하나님께 매일 전도, 주일성수 그리고 정기적인 성경공부, 이 3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시화운동을 하면서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명함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해 놓고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수요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인평 장로님께서 춘천으로 발령을 받아 오셔서, 함께 성시화운동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관장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를 하다보니까, 모이는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8일 유명산에서 홀리클럽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범찬 장로님(이정원 강원지부장) 춘천으로 부임하여 오시게 되었는데, 산딸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조남진(강원일보사장), 문선재(강원대) 총장님을 비롯해 기관장모임에 나오시는 기관장님들의 80%이상이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는 분들을 춘천으로 발령내시는구나! 하는 더 큰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청주로 발령을 받아 춘천을 떠나고 양인평 장로님은 대전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시화운동을 춘천에서만 해야 할 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평생동안 해야 할 운동이라는 깨달음이 들면서 성시화운동에 이들을 불러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늙지 않고 하는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대청춘운동대전, 청주, 춘천의 첫자를 따서 만든 이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청주에 있다가 인천, 대구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춘천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면서 홀리클럽과 성시화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양인평: 저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고,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어,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봉사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춘천으로 발령받은 즈음에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와보니, 춘천성시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서 돌리려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도시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도시로 만들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춘천을 성시화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시화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어난 흥미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관장모임을 하다 보니까, 술이 없어진 거예요. 보통 기관장모임을 하면, 으레 저녁때 모여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모임에 모이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니까, 자연스레 술을 안먹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찬으로 모임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모여서 설렁탕 하나 간단히 먹고 나서, 어떻게 춘천을 성시화 할 것인가?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장님, 강원대 총장님, 강원일보사장님 등 함께 모이니까, 춘천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학교에 이런 행사가 있다하면,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성시화운동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점화식을 하면 기관장님들이 다 모여서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축하송도 하고, 춘천이 성시화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신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힘든지도 모르고 행복하게 심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발령받은 것이 1995년입니다. 그러니까 춘천성시화운동의 씨앗이 땅에 떨어진 지 23년이 되는 해이지요. 그동안 성시화운동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긴 했지만, 단지 기도로만 전개해 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어려운 문제들도 있었지만,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상설기관으로 창립된 것은 성시화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처음으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대전성시화운동본부 창립 6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춘천은 그보다 2년 앞선 8

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 여기에 계신 오승룡 목사님께서 총무로서 열정적으로 성시화의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에 여러 번 가서 청소년들을 격려해 주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이제 본부장님이 되어서 성시화운동이 더욱 성숙되고, 활성화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2000년 7월에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전용태 장로님을 비롯하여 함께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 12명과 함께 기독교번화사회인 로고스법무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가장 큰 주 사업은 성시화운동을 후원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독교교도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시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시화운동이 범죄를 없애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어야만 성시화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소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 일에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장로님들보다 춘천에 제일 오래 2년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제가 춘천에 있으면서 법원내의 신우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 22개가 됩니다. 아마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제소자 선교단체인 세진회 춘천지부입니다. 지금은 활동이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범찬: 제가 강원도에 처음 근무하게 된 것은 78년도에 원주출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입니다. 그 당시 부임해서 출장소를 짓고, 원주에 계신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임마누엘, 여호와아메, 에벤에셀에 관한 말씀,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편이 되셔서 손을 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1995년도에 춘천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오니까, 조남진 장로님과 이학규 장로님 그리고 전용태, 양인평 장로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장님이나 법원장님들은 권력기관에 계신 분들이니까, 매우 권위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장로님들은 정반대로 매우 겸손하시고, 온유하셨습니다. 그 당시 춘천성시화운동본부를 만드는데, 두분의 장로님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성시화운동본부를 창립하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니까, 일부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셔서 비협조적이었어요. 그래도 낮은 모습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도에 있는 마더 테레사가 섬겼던 사람의 집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할 있다!"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부하직원한테도 이 말을 인용하면서 서로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한 사람이 100% 퍼펙트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적은 없습니다. 성시화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 평신도들이 다 하나될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이 가장 최초로 일어났던 곳이에요. 저는 가끔 춘천에서 성시화운동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봅니다. 춘천이 한반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시화운동이 춘천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전용태, 양인평 장로님을 보내셔서 성시화운동이 크게 일어나도록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춘천에 와보니, 그 당시보다 몇 배로 열매를 맺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앞으로 국내, 국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성시화된 춘천을 보러가자! 외치며 춘천으로 물러올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딸나무 장로라는 별명에 대해서 잠시 간증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내국동에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남산과 이문동에 있었습니다. 국정원을 한달 동안 내국동으로 옮길 때, 이문동에 있는 나무를 옮기는데, 거기에 산딸나무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사실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산딸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미국의 존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기념으로 산딸나무를 선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꽃도 십자가처럼 피는 나무입니다. 사실 확인여부를 떠나서, 내가 이 말을 믿겠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십자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던 중, 춘천에 발령받아서 산딸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처음으로 모든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선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춘천시장이셨던 배계삼 시장님께서 산딸나무 수천그루를 심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춘천을 성시화의 도시로 선택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영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시화운동이 21세기 기독교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글 : 시진 / 편집부



지금은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허 문 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통일선교대학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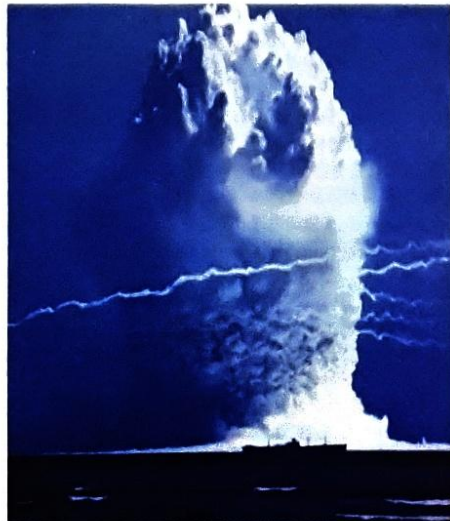
그 뜨거운 10년만의 무더위도, 밤잠을 설치게 했던 아테네 올림픽도 이제는 모두 끝났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은 태평양상대가 도래하였음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금메달 순위에서 상위 10위 이내에 미국, 중국, 러시아, 호주, 일본 그리고 한국 등 무려 6개의 태평양 국가가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나라 안팎은 여전히 뒤숭숭하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주변 열강들의 각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로 뽑힌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정쟁만 일삼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이다. 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자.



첫째, 한반도 정세가 별로 안 좋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01년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386세대의 반미 시위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전략의 변화로 인해 이완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은 주한미군 일부를 이라크로 파병하였고 나머지를 한강 이남인 오산과 평택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장차에는 주한미군의 4성 장군을 일본 또는 하와이로 철수시키려는 의향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경쟁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역사전쟁과 더불어 영토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2년 전부터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고구려가 중국의 속주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을 합리화하는 역사왜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임류강과 두만강을 지키는 국경수비대를 경찰에서 군인으로 바꾸었고, 심양군 구에서는 장교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북한체제의 붕괴와 통일한국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본 또한 역사왜곡 교과서를 도쿄(東京) 도립중학교 역사교재로 채택하였고, 독도를 자기 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9월로 예정된 제4차 6자회담은 개최여부와 합의도를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고, 북한 또한 부시행정부와의 타협 가능성을 낮게 보고 11월 미국대선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 3월에 북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였고, 6월에는



'보이지 않는 비행기' 스텔스기 1개 대대(12대 추진)를 한국에 배치하였고, 8월에는 '천하무적의 방패함' 이지스함이 동해에 들어오며, '바다 위의 사령부' 항공모함도 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북한은 정변 혁명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그리고 부시행정부는 영변 핵시설을 향해 외과수술식 공습공격을 단행하려는 것인가? 그러면 북한은 이에 맞서 장사정포로 남한을 공격하고 말 것인가? 지금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이다.

둘째, 남북관계도 별로 안 좋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김일성 사망 10주기 조문을 불허하고 468명의 탈북자를 집단 수용하자, 북한은 8월 3일 개최 예정이던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무산시켰고 8.15 민족공동행事も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애꿎게 북한동포들의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영양실조와 경제난은 결국 통일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지도부의 회개와 각성 그리고 남북화해와 대화 재개를 위해 기도할 때이다.

셋째, 국내 상황도 별로 안 좋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1988년 IMF 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불량자 400만명, 비정규직 800만명, 그리고 '이태백' 이삼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 45살이 정년, '오륙도' 56세까지 퇴직하지 않으면 도둑놈시대라는 것이다. 기업인들은 고임금과 불리한 생산여건으로 인해 중국으로 나가거나 공장을 닫고 있고, 급기가 나라 밖은 1988년 80조에서 2004년 말 191조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지역·계층·연령 갈등에 2002년 대선 이후 세대 간의 갈등마저 덧붙여져 사회분열이 심화되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음란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 새로 뽑힌 우리 정치인들은 과거사 논쟁, 국가보안법 폐지, 수도 이전, 호주제, 의문사 및 민주인사 진상규명 등을 놓고 정략적·미시적 논쟁을 지속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미숙한만을 드러내고 말았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의 음란과 부정부패와 거짓됨을 하느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비와 소망을 구하기 위해 기도할 때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대하7:14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그 악한 길을 떠나자.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이 땅의 황무한과 위급함을 보시고, 천히 역사하시사 의와 공평과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할 때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벽기도에 불을 다시 붙이자. 경건의 시간을 더욱 확보하자.

천일기획 since 1978
대표 천 일 안수집사

실사, 나영, 인쇄물, 판촉물
작자, 썬팅, 기타상담

교회현수막 전문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작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Tel. 255-5722
Fax. 256-5722

* 디자이너 : 박은진, 전남희
* 기술담당 : 박승기 **디자이너 (구인)**



천국열쇠 · 기획



홍경 훈집사

열쇠 복사
도장
판촉물
기념품 제작

양우APT 사거리

☎ 242-2897 / H·P 011-360-2897

2004년도 북해도 단기선교를 마치고...

글. 김진현 장로 | 춘천제일장로교회 협동장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16박17일간 일본 북해도 단기선교사역을 다녀왔다. 북해도 전체의 중심지인 삿포로에서 6박7일간, 그리고 북해도 동북부지방(오호츠크현연안)의 중심지인 아바시리에서 7박8일간 개인전도사역을 하였다. 삿포로에서는 본교회의 자매교회인 삿포로한인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삿포로 전역의 대학캠퍼스를 방문하여 대학생 을 대상으로 전도사역을 하는 한편, 자매교회 주변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도사역을 하여 111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그리고 오호츠크해 연안지방에서는 교회 없는 지역인 라우스읍(현재 러시아령으로 되어 있는 쿠나시리섬이 마주 바라다 보이는 지역)을 비롯하여, 아바시리시와 키타미시, 그리고 메맘초읍과 비호로읍 등 2시3읍에서 주로 초·중·고등학생을 전도하여 257명의 결신자를 얻었다.올해사역 결신자 도합 368명). 물론 우리팀 멤버들이 정성을 다하여 전도한 대상자는 결신자 숫자보다 훨씬 더 많지만 상당히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처음부터 냉담하게 전도메시지 듣기를 거부하여 우리를 무안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전도메시지를 끝까지 듣고도 최종적으로는 영접을 거부하거나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대답을 하고 돌아서 버려 우리들을 실망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을 얻기로 미리 작정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 팀의 일본단기선교사역은 올해 13년째로 단기선교사역의 특징은 한마디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이에 힘입은 개인전도의 풍성한 열매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에 걸친 실제현지사역이 끝나면, 그 다음달(9월)에 바로 새로운 팀을 구성하여 약1년에 걸친 집중적인 일본어학습(황병호 장로, 김진현 장로 공동지도)과 일본어 성경강해, 일본어 전도훈련, 일본어 찬양부르기·듣기, 선교지와 기존 결신자를 위한 중보기도, 매일의 자기훈련 및 발표 등의 철저한 훈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팀이 차년도 사역에 투입되기 때문에 단순한 정탐여행이 아닌 실천(1:1 개인전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제12기 사역까지는 춘천IVF멤버들을 주축으로 팀을 구성하였고, 사역형태는 오로지 개인전도활동에만 치중해 왔지만, 제13기 사역인 올해는 춘천제일장로교회멤버와 춘천IVF멤버가 양대주축이 되어 팀을 구성하여 사역형태도 개인전도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주일에배시간(대예배 및 오후예배)을 활용하여 본교회 박상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일 부흥회를 개최하여 기존성도들을 일깨우고 격려하는 사역도 함께 시도하였다. 성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더욱 개발하고 심화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팀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시간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십여년간 지속적으로 '일본'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의 크리스천이 일본선교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일본인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크리스천 인구는 신·구교를 합하여 100만 정도이며, 개신교로만 보면 약 40만 정도이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1996년11월말 현재 정기적 출석 교인 26만여명 정도라고 한다). 일본 인구 1억2천7백만의 0.8% 이하인 셈이다. 이러한 일본의 복음화율은 공산권 국가가는 물론 대부분의 회교권 국가들보다도 훨씬 뒤떨어지는 것으로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한다. 바로 우리의 이웃에 1억2천7백만의 민족(인구 세계7위: 단일민족 국가로서는 세계최대)이 사탄의 지배 아래 흑암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교회의 인적·물적 부요에 대비되는 일본교회의 철저한 가난함·허약함 때문이다. 일본의 기초지방 자치단체인 市·町·우리의 읍에 해당)·村(우리의 면에 해당)의 55%는 교회가 단1개도 없는 교회 미설치지역이다. 그나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교회들도 60~70%가 3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며, 10~20%는 1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이다(1997년 통계). 향후 수년 이내에 상당수 교회의 목회자가 은퇴하게 되는데, 그 뒤를 이어야 할 목회자 지망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교세가 약한 대부분의 교회는 무목교회(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되리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셋째로, 우리의 역사적 원죄 때문이다. 우리의 교과서는 우리 민족이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것을 자랑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450여 년전에 일본 큐우슈우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타오르던 카톨릭 선교의 불길을 가혹한 탄압으로 말살시킨 것이 바로 토쿠가와 막부의 그 불교강요정책이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기독교(카톨릭)만큼 그렇게 장기간 집요하고 끈질기며 잔인하게 박해받은 민족교회는 없다고 한다. 자그만치 300년간이나 그러한 박해가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일본인들의 뇌리에 기독교는 외래적인 것이며, 그것을 믿으면 신상에 해롭고 패가망신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세뇌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거의 모든 일본인의 가정에는 불단(佛壇)이 모셔져 있고, 도시·농어촌 가릴 것 없이 구석구석 자그마한 공간이라는 공간에는 미니 불상이 놓여 있다. 한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의 폐풍을 우리가 전해준 것이다.

선교로 이 빛을 갹아야만 한다.

넷째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실은 고대 한국인이 바다를 건너가 세운 나라요, 일본인의 70~80%는 이른바 도래인(渡來人: 바다를 건너가 일본에 정착한 사람)의 후예이고, 그 도래인의 대부분은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어서 민족적으로도 원래 한 뿌리에서 출발한 형제 민족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본인의 잠재적 선교역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일본이

복음화된다면, 일본민족의 성실성과 꾸준한 성품 그리고 자질의 우수함, 여기에 세계2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엄청난 선교역량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세계선교를 주도하는 미국과 한국에 이어 바로 우리 이웃나라에 든든한 선교파트너가 생기게 된다면, 얼마나 기쁨 뿌듯한 일일까?

다행히 일본의 영적분위기가 요즘 들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개인전도를 해보면 그러한 것을 곧 느낄 수 있다. 다만 아직 미약한 일본교회에 일본선교 전체를 맡기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고, 영적으로 가진 자인 우리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나선다면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일본복음화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리라고 믿는다.



춘천시 지정 모범업소

유림닭갈비

대표: 최 순 복 권사

온의동 닭갈비촌 골목 원조집
순수국산닭만 사용하는 맛음과
기쁨을 주는 믿음의 업체입니다.

본관 253-5489
별관 251-5489



NEX ALKA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NEX ALKA 전해수 생성기

몸에 환원을 주는 알칼리이온수-
과학이 찾아낸 최고의 "환원수"



한서대학교 산학협력 자연의학연구소 개발
Hansoo University Research-Business Collaboration natural medical Research center
일본 사노기술연구소 기술제공
Technical Set-up W/Sano Tech RVC in Japan

- 일본 큐슈대학 유전자 공학부 학술교류 협력회사
- 일본 교토대학 및 아카시병원 의학교류 협력회사
- 고려대학교 농학 연구소 임상자료 협력회사
- 동서한방병원 임상자료 협력회사
- 대한한방병원 협회 협력회사
- 한국사회교육원 협력회사

■ 전국설치 및 A/S센터 지정점 TEL: 1544-7337 / TEL: 080-637-8282

J.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과 성시화운동

거룩한 도시를 향하여

칼빈의 개혁운동은 교회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적인 교회로의 회복이 개혁운동의 첫 출발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살고 있었던 제네바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합당한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전면적인 개혁운동을 실천하였다. 제네바시 개혁운동을 살펴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교회개혁운동과 제네바시의 개혁운동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개혁운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과 시민이 된다는 것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곧 시민공동체였고, 시민공동체는 곧 기독교 공동체였다. 두 공동체 모두가 동일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개혁운동과 제네바시 개혁운동은 상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왜냐하면 칼빈은 교회는 영적동치기관으로서 세속적인 재판권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네바시의 개혁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나 통가를 받아야만 했다. 칼빈의 개혁운동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시의회와 선거를 통해서 칼빈보다 더 많은 세력을 확보하여 개혁운동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칼빈은 때로는 위협과 절망에 사로잡히면서도 관원들이나 시민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진정으로 개혁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 그가 제네바 시의회를 완전히 장악하기까지는 14년의 풍파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만 했다.

삶을 개혁하라!

칼빈은 환경이 성격과 습관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도덕적 비행의 원천들을 일소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그 당시 제네바는 사실상 철저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중세의 제네바는 역사가들이 공동적으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방탕한 폐락의 중심지였다. 칼빈과 당국자들은 수많은 술집과 사창굴을 제거하기 위해 강제적인 조치를 호소했다. 또한 칼빈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지지한다고 선포했던 부유한 계층들을 결코 크게 신뢰하지 않았다. 칼빈 자신은 제네바로 물려오는 난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의 봉급과 집을 항상 난민들과 함께 써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 밖에도 칼빈은 고리대금을 금하였고, 노동자와 주인 모두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였다. 칼빈의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제네바는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556년 12월에 스코틀랜드의 개혁가 존 낙스가 그의 영국 친구 안나 로크부인에게 편지를 써서 칼빈의 도시를 극찬한 내용은 이러한 개혁의 결과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곳은 감히 그리고 땀없이 말할 수 있지만, 사도시대 이후로 지상에 존재했던 그리스도의 학교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파하지만 생활과 종교가 이처럼 신실하게 개혁된 곳을 나는 아직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칼빈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칼빈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 첫 번째는, 오늘날 사회는 기독교인들만으로 시민이 구성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의 자격은 기독교인의 특권이 아니며, 다양한 종교와 신념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실한 정제를 전 사회 구성원들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인간연대의식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점이다. 칼빈의 신학에서 부분적으로 제구성된 인간의 삶은 공동체를 사랑함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죄인들에 대한 문제가 시의회에 의해 부가되어진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시대에 있었던 공동체주의와 인간의 연대의식에 격렬한 감정은 목사들과 의회원들로 구성된 장로법원이 세속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세상의 법(敍)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이 무시되고, 방해되었으며, 개인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도록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어찌되었거나 16세기 제네바에서는 이러한 행위들이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 등을 최대한으로 보호해야 하는 시대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동체적인 시민의 연대의식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충분히 배려해 주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개인 시민에 대한 책망과 징계를 결코 교회가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도 없고, 감당하려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칼빈의 신성정치란?

현 시대를 “다원주의시대”라고 말한다. 즉, 모든 종교와 신념, 가치관을 비판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진리로서 권위를 부여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를 볼 때 제네바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구태의연한 종교 맹신자들의 독재정치만을 보게 될 것이다. 칼빈이 얼마나 관용이 없었으며, 그의 반대자들을 얼마나 강렬히, 그리고 미련하게 박해했는가를 볼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일의 전부가 아니라 생각해서는 안된다. 마치 이

것은 제네바에 숨겨있던 값진 진주를 보지 못하고 진주를 덮고 있는 황폐한 흙더미만을 보는 것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제네바 개혁에 대한 이러한 표면적 왜곡의 이해와는 상반되는 역사적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의 하나는 칼빈주의 신앙이 가장 강한 뿌리를 내리고 국민적 생활을 가장 깊게 침투시켰던 나라들—스위스, 화란, 라인강 지역의 독일,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과 칼빈의 제네바개혁이 인간의 종교적 자유를 억누르거나 정치영역을 교회가 장악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나타내 준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교회와 국민 생활의 전면에 광범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칼빈의 생각이 제네바 개혁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루터와 교회나 성공회와는 달리 경건의 훈련이 전체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지기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네바에 있어서 실제로 “신정정치”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시대에 있어서조차도 전혀 생소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현대의 국가도 공익을 위태롭게 한다면 간음, 간통, 처자 불법 유기 및 여타 “종교 법원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징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모든 사회가 유지해야 하는 통상적인 법률이 있다면 이것은 참된 경건의 훈련에 의해서도 지배받을 수 있게 교회에 의한 훈련은 국가의 정치 권력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회에 의한 경건의 훈련을 통한 제네바 개혁에 대한 칼빈의 순수성은 다음과 같은 인용 및 종교 우월주의에 대한 생각과 사회개혁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첫째, 인종적, 종교적 우월주의는 칼빈의 개혁운동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둘째, 칼빈은 복음 그자체가 이방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막연하게 믿지 않았다.

셋째, 칼빈의 제네바 개혁은 헌법 하에서 투표와 법률에 의한 개혁이었다.

시장은 선출된 관리였으며, 시민들은 투표제도에 의해 투표하였다. 우리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법률은 엄하였으나, 그것은 엄연한 법률이었지 책령이나 포고가 아니었다. 개인들은 그 법률을 하여 심한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계급에 의한 차별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은 법과 법률에 의한 개혁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맺음말

지금까지 칼빈이 개혁운동의 산실이 되었던 16세기의 제네바시 성시화운동을 살펴보았다. 제네바시는 한 세대라는 짧은 시간에 중세의 유산이었던 영적, 도덕적 부패를 한 번에 벗어던진 최고의 도시였다. 이것은 칼빈이라는 개혁자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교회와 사회를 삼켜버린 결과였다. 16세기의 제네바시는 이제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러나 거룩한 도시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성시화운동의 영원한 모델도시로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글/ 정재호 목사



창조와 신화를 제일로 하는 창조전문건설업 면허업체

강원농원조경공사

조경설계 및 시공전문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 ◆ 제배잔디판매
- ◆ 정원공사, 주택, 별장, 가든 조경공사
- ◆ 씨드스프레이, 자연석 쌓기
- ◆ 각종 목목, 생산판매 전문
- ◆ 제배 잔디 생산, 판매 전문
- ◆ 각종 관상수/조경수 전문



춘천시 근화동 266-2(강원에식장 뒤) 대표 임 회 방
☎ 254-8986 / FAX 255-8981(야간:254-5930) / H·P 011-369-1278

건강한 집

녹색삶의길집이. 세균과의 전쟁(출장 즉석항균세탁)

- ▶ 곰팡이 세균에 오염된 침대
- ▶ 침대매트 특수항균 세탁
- ▶ 아동용의 오염내색과 얼룩진 침대
- ▶ 1년이상 사용한 침대
- ▶ 강대상, 바닥 카페트, 의자, 소파 항균세탁
- ▶ 자동차 시트, 천정, 바닥세탁

침대세탁119, 피아노 조율·수리

대표이 무식장로 (010-7525-0089)
대표전화 : 033)261-2305(H·P: 016-848-7343(담당기사))

예수님을 닮은 교회

순천지역 교회탐방으로 이번 호는 '꿈이 있는 교회' (최형수 목사)편입니다.

시 내에서 조금 벗어나 외곽순환도로를 달리다보면 (학곡 사거리에서 1Km지점) 아름답게 신축된 [꿈이 있는 교회]를 만나게 된다. 꿈이 있는 교회는 2001년에 창립된 어린 교회.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면 안락한 분위기와 함께 십자가 대신 "예수님처럼"이라는 문구가 한 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예수님처럼 살고픈 교우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한 쪽엔 새가족 정착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알파코스"가 적용되는 교회임을 알리는 소박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반갑게 맞이하는 최형수 목사.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진솔하다.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는 최목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으로와서 2001년 7월 5일 주공아파트2차 상가 4층의 30평 건물을 임대하고 설립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건물의 매각으로 건물주가 바뀌게 되고 6개월을 기도 가운데 고심하게 되었다 한다.

현 부지(대지 352평)의 매입과 건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인도였다. 매입한 토지는 일명 "땀지" (사자:죽은 땀이라고도 한다)로서 군사집경지역이었고,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허가받을 수 없는 땅이었다. 군부대의 허가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땅. 그를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으로의 이전을 반대했다. 그러나 주님의 본격적인 개입은 이때부터. 부대의 실무담당자가 그리스도인이었고, 최목사는 당당하게 모르드개에 에스더에게 말해주었던 성경말씀을 인용해 주었다고 한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스더4:14) 그 후 극적으로 군 당국으로부터 허가가 나온 일화를 기쁨으로 간증한다.

건축 중의 어려움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설립의 역사가운데 늘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 최목사는 건축 중 마음고생이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 감사한 것은 많지 않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는 기회가 되었고, 매서운 겨울 추위 가운데서도 뜨거운 신앙의 본질을 확인하는 예배가 건축기간 내내 중단없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최목사, 4대째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

이곳에 교회를 설립한 최목사의 가계는 4대째 이어지는 신앙의 가정이다. 작은 아버지께서는 황해도에서 전도사로 시무하시다가 공산당원들에 의해 순교당하기까지 하셨다고 한다. 선친은 서울 한남동에 한남중앙교회 장로로 오래 섬기셨다. 신앙적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 최목사. 그러나 주님을 깊이 만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로서 당시 부흥사로 유명했던 김진택 목사의 부흥회에 참여하면서 부터이다.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생겨난 것도 이 무렵. 그러나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왔다. 가정이 선친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최목사는 동생들을 공부시키느라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년을 시장 점원으로 보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목회에 대한 부르심은 뜻밖의 계기로 찾아왔다. 중학교 2학년 때 심장판막증보다 정확한 학명은 '심장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당시 현신에 권사와 함께 신유 사역자로 활동하던 변계단 권사의 안수를 통한 신유의 역사로 성령체험과 함께 병이 완치되었다. 이때 주님 앞에 일생을 드리는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헌신하였다고 한다.

최목사는 종신대학교와 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성덕중앙교회와 수원제일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며 젊은이 사역과 양육사역에 힘을 쏟았던 실천가형의 목회자이다. 해외 선교사역에도 관심을 기울여 중국 조선족 크리스찬들과 북한 젊은이들을 신학적으로 훈련하기 위해 세워진 하얼빈 신학교에서 전병욱 목사(삼일교회) 등과 함께 강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최목사의 가족으로는 사모님(남금래, 장남 예성(동내 초6), 차남 예해(동내 초4)가 있다.

교회 공동체의 비전

최목사가 꿈꾸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이다. 예수님은 요10:10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늘 풍성함이 머무는 곳이고, 진정한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이라고 최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최목사는 연초에 접하게 된 알파세미나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다. 하나님은 관념속의 하나님이나 아니라 지금 이곳에 우리의 삶과 예배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동안 최목사는 기성교회에서 적용하였던 제자훈련 방법론을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개척시부터 활용하였지만 돌이켜 보면 토양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반성한다. 기존 교인들은 영적 소화능력(?)이 있어서 고기와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영적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한 신생교회는 고기와 밥보다는 부드러운 우유를 먹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 접목이 된 알파컨퍼런스(부드러운 제자훈련)를 통해 예배의 개혁부터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에 몇 명이 모이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다고 한다.

신앙의 모델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추천해 달라는 말에 최목사는 주저 없이 교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김준수 목사를 꼽는다. 최목사는 말한다. "그분은 예리한 지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많은 책을 읽고 집필하신 분이시지요. 저는 그분을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으로부터 더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목회는 영혼사랑이라는 기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김준수 [디지탈기독교강요]의 저자로 잘 알려진 집필가이다)

고은리, 교회가 없는 지역

마지막으로 최목사는 말한다. "이 고은리 지역은 교회가 없는 지역입니다. 강원도의 천주교 성지에 가깝지요. 95%의 주민들이 자신은 천주교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고은리 지역은 천주교회가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 약하다는 면에서 복음적인 교회의 역할이 필요한 곳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아름다운 꿈을 간직한 교회. 이에 어울리는 최목사의 아름다운 미소를 뒤로하며 가벼운 발걸음을 옮긴다.

(취재 최상도 목사, 사진 김미경 간사)

최형수 목사

1962년 3월 9일생
1989년 종신대학교 졸업
1993년 종신 신학대학원 졸업
1994년 복사인수(예장합동총회)
1994-95 성덕중앙교회 부목사 사역
1996-2000 수원제일교회 부목사 사역
현 2001년 7월 5일 - 꿈이 있는 교회 담임

꿈이 있는교회

(학곡거리에서 구룡산 방향(해미리 도로변)

순천시 동내면 고은리 559-20

☎264-0691/영육구원/011-386-6239

사진의 명가

귀빈스튜디오

[주공 1단지 시장 옆]

▶백악·돌·웨딩사진촬영

▶교회임직가림사진촬영

대표 신 병 철
(순복음순천교회집사)

전 화. (033) 253-8608 / 휴대폰. 011-377-2599

에덴실과

생일, 결혼, 은진, 효도 대표 김 정 관 안수직사
문병, 개업식 각종 기념일
영사에 필요한 과일
문안카드와 함께
배달에 드립니다.
전화 주문
(033)242-5252
256-5252
후평동 현대 2차APT 앞

소개합니다

강원도 기독교미술인협회



강원도 내 기독교 미술인들의 모임인 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는 기독교 미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발표의 기회를 넓히고 전시를 통하여 미술인의 전도와 상호 친교의 목적으로 1997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8회를 맞는다. 지난 7월초 제8회 강원도기독교미술대전을 춘천미술관에서 개최하여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다섯 분야의 회원들이 개성있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특히 '2004 성시화를 위한 춘천신교대회'에 문화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 미술대전을 동부장로교회에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미술대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원들에게 베푸어

주신 달란트로 춘천복음화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춘천의 시민들에게는 심오한 작품세계를 감상하고 향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글정리/편집부, 자료제공/강원도기독교미술인협회)

【회원명단】

김영남, 김규영, 김동하, 김명숙, 김병호, 김승수, 김현배, 노영식, 박현철, 소금숙, 엄경희, 오은경, 원정자, 윤혜숙, 윤호삼, 이관형, 이민진, 이상범, 이성재, 이예원, 이운식, 이정주, 이관석, 이현주, 오승자, 장수빈, 정가수, 정영숙, 정효현, 최은희, 황대국

회 장 : 이운식 254-7697 / 011-9793-7699
부회장 : 김명숙 262-5034 / 019-432-5035
사무장 : 이현주 257-4178 / 016-337-1840

영혼의 양식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영16: 16-34)



오승목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이나 화연, 그리고 자연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 가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붙잡혀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인은 물질 욕심에 사로잡힌 불쌍한 여인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원들은 편견에 붙잡혀 사도 바울 선생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춘천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1.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바울은 서아시아에서 성령에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면 빌립보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하고 마케도나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계획에 붙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고 고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 무엇에 붙잡혀 살아갑니까? 바울 선생처럼 성령에 붙잡힌 자로 살아 가야하지 않습니까?

2. 바울은 또한 사랑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림을 받은 바울은 귀신이 들려서 점하는 여인을 보고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제가 총무로 섬기는 동남아선교회에서는 미얀마신학대학 강당을 건축하고 헌당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학장인 영망목사님을 만났습

니다. 신학교강당으로 이동하는 버스 속에서 이곳에 망봉이라는 목사님이 11월초에 결혼을 하는데 신장에 결석이 생겨 작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이 되어 지금 제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위급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말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귓전에 맴도는지... 그래서 그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으니 약 6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미얀마 근로자 한 달 월급이 3만원입니다)

저의 주머니에는 루비생산지인 이 미얀마에서 결혼식 때 받지 하나도 못해준 아내를 위하여 쏘폰까지 마련하여 준비해 온 돈이 꼭 6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찌면 그렇게도 정화하십니까? 많은 시간의 갈등 속에서 저는 그 60만원을 영망학장에게 주면서 망봉목사를 속히 수술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귀국한 후에 메일로 연락이 왔는데 미얀마에서 제일 좋은 병원에서 수술 받아서 잘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춘천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2004 성시화를 위한 춘천신교대회"를 하고자 기도하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구호에 그치는 춘천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하여 춘천에 뜻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매주 금요일 9시 30분에 정해진 교회로 다니면서 철야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에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이 되어서 춘천을 거룩한 도시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는가?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욕심에 붙잡혀 살아가는가? 다시 한 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춘천기독교 수양관 개원

전인치유의 요람
기도응답 / 영성개발

에배시간 : ◆ 토요일 오후 2시 원장 전인치유세미나
장 소 : 춘천기독교수양관 (0502-302-1004)
(춘천시내 버스 38번, 민생병원 앞 오후 1시, 저녁 6시 30분 운행)
http://www.happyvalley.or.kr

※ 차량운행 : 춘천당 버스종점에서 수양관 수시운행
춘천시내 버스 38번, 민생병원 앞 오후 1시, 저녁 6시 30분 운행
(200-864)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왕리 455
TEL : 0502-302-1004 FAX : (033) 243-0831
http://www.happyvalley.or.kr



박 해 일 목사 저서



해피밸리
사계절 눈썰매장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2004 한국번개건축 뜨거운 관심아래 성황리에 마쳐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는 기독교자원봉사단체(NGO))는 8월 2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4개 지회(대구/경북지회, 진주지회, 천안/아산지회, 춘천지회)에서 한국번개건축2004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 여름 뜨거운 태양아래 이웃사랑을 "행동하는 사랑"으로 보여준 1천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입주일동안 건축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이후 마련된 많은 행사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마지막 날 행행한 헌정식에서는 입주자,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모두 하나가 되는 감격스런 시간을 보냈다.

2004년 한국해비타트운동의 테마는 "집보다 소중한 것을 지어주세요"이다. 이는 해비타트운동이 단순히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건축하는 것이며, 집이 없는 입주자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 모두에게도 나누는 삶의 의미를 실감케 하는 실천운동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집이 없어 희망을 잃은 가정에게 해비타트의 보금자리가 주는 의미는 삶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 수 있는 자립의 디딤돌이며,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회복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해비타트) 춘천지회에서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3년 설립 이후 지난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약 5여여명의 투입과 1,000여명의 국내외 자원봉사자 참여로 8세대를 완공하여 처음으로 추진해온 사랑의 집이 9월 18일 오후 2시 춘천시 신복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 올 여름 춘천에서 땀을 흘렸던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참석으로 주석을 맞으며 새로운 보금자리에 입주하는 입주 가정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준공식이 있었다.

기독교인은 거주하는 집이 크면 전세와 월세를 놓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하며 더불어 사는 사랑을 나누며 수고를 하는 자들(행4:34-37)이며 집이 없다고 해서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1-3)를 믿으며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는 평안을 갖고 사는 자들이다.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다.(렘3:20) 이 일로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훗날 상속받게 될 곳으로 떠나가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떠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약속된 동일한 것에 대해 함께 상속자 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들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만드신,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음이라."(히11:8-10)

글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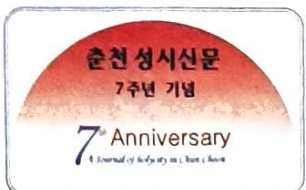
믿는이의 질병

믿는 이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병을 앓을 때마다 크나큰 축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오직 하나님(모든 영의 아버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이다(히 12:10). 질병은 때로 우리가 우리의 이전 생활을 회상하거나 점검하도록 하여, 어떤 감춰진 죄나 완악함이나 자기 뜻이 있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한 것이 아닌지를 살펴볼게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대체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그분과 간격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살펴서 과거 나날 중 우리의 생명 안에 자아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많았고 우리

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영적인 생명에서 진보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내게 한다. 건강할 것으로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므로 육체적 장수가 아닌 우리의 믿음 바 부활을 순수한 마음으로 일깨워 기억케 함이다. 저 복된 소망 즉!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다. 글 / 편집부



<김 춘배>



혁신적인 초절전형 반도체조명

시온라이트(반도체조명)의 특기사항

- ◆ 규격이 다양하다. (직경 6-13mm, 길이 4m 계속 연결하여 무한정 가능)
- ◆ 전기사고로부터 안전하다.
- ◆ 안정기 없이 220V에 직접 연결한다.
- ◆ 휘도가 아주 밝다.
- ◆ 무공해(LED라이트로 환경보호) 내온사인 간판에서는 네온가스와 수은이 발생하여 심각한 오존층 파괴)
- ◆ 기존 네온대비 94% (13분의 1)의 초절전제품이다.
- ◆ 간판, 종탑, 십자가, 인테리어, 수동조명, 모형, 문자 등 사용처가 다양하다.
- ◆ 특허를 획득한 제품이다.



수동기도원(남양주시 수동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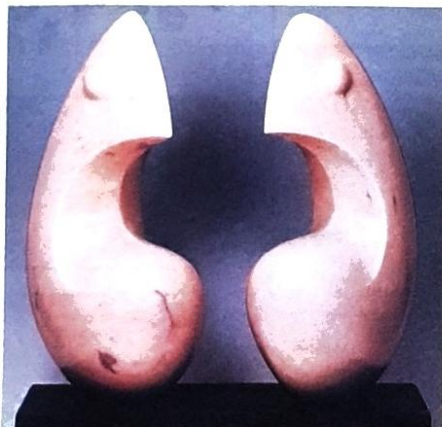
성명수교회



임제세일교회·기도원 (경기도 김포시 오송면)

제조원: (주) 시온라이트 | 시공사: 한국기독교공사 | 주 최: 기독교 에너지 절약 운동본부 |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80-4 금수B/D 602호 | TEL: 02) 3143-4021~1 | FAX: 02) 3143-4024

/ 작 / 품 / 세 / 상 /



강원도미술인협회 회장 이은식 / 생 명

상징성 서정주의

예술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제2의 창조자가 된다.
제2의 창조란 대자연의 만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고 작가마다 고유의 사물을 독창적인 기법으로 창출하는 작품을 말한다.
고대 이집트문화에서 현대까지 찬란한 모든 인류 문화유산들은 미술사의 범주에 속한다.
이탈리아 미술평론가 '로도비코'는 나의 작품 세계를 "상징성 서정주의"라고 하였다.
작품 "생명"은 고기의 형상을 곡선으로 변형, 단순화시켜 만든 작품이다.
함축된 원형으로의 생명체이다.

모든 아이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자라야

글 / 효자감리교회 김종호목사

IMF이후에 경제적 폭풍으로 인해서 가정들의 실직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였다. 고통의 분담을 호소하면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므로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발견함으로 제기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약하고, 안정된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최근의 장기적인 경제 불황은 또 한번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후, 최대의 피해자는 아무런 죄도 없는 소중한 우리의 어린이들이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삶의 동지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가정붕괴의 속도는 과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따뜻한 배려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WE START 운동의 통계에 따르면 100만 명의 아이들이 굶거나 방치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아동·청소년 방과후 공부방은 결국 이런 상황적인 필요를 보면서, 이 아이들을 우선 잘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는 것을 담당하는 나눔과 희망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결혼

가정과 빈곤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방과후에 학원을 전전하거나 컴퓨터게임방, 오락실, 운동장 등 거리를 배회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자칫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범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과후 공부방은 바로 이 모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복음을 심어서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사명으로 보고 있다.

저희 교회는 은혜공부방을 IMF바로 후인 1998년 9월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20~30명의 아이들을 교회교육관에서 2명의 교사와 여러 자원봉사자가 돌보고 있다. 이웃에 봉사하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교회본연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공부방사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공부방에 아빠는 술로 일찍 돌아가지 않고, 엄마와 사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1학년 3자매가 있다. 엄마는 자활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공부방으로 인해서 이 3명의 아이들이 잘 돌봄을 받고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엄마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며, 결과적으로 온 식구가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우리 공부방을 통해 부스르기선교회와 연결되면서 매달 생활보조금도 10만원

씩 받음으로 희망의 씨앗이 터져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을 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부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는 약 1000여개 정도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공부방이 교회가 선교, 봉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잘못된 것은 대부분의 공부방이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공부방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재정과 시설면에서 아주 어렵다. 이와같은 열악한 공부방에 작년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아동복지비를 개정하여서 공부방(지원아동센터)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자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공부방은 주일 교회학교와 함께 좋은 선교·교육·봉사의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많은 교회의 건물은 주일외에는 별로 쓰여지지 않고 문들이 꼭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좋은 건물이 지역에 아이들을 돌보는데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을 살리면 온 교회와 온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은혜공부방(효자감리교회)
255-8865, 010-3045-8865
http://www.jckh.org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02-313-4453

구인·구직광고

"너의 장막 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 줄을 길게 늘리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이사야 54:2)

성시신문에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신뢰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합니다.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진 업체와 준비된 구인자의 만남의 통로를 세워 나가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꿈이있는 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실분을 찾습니다.

문의 264-0691 (영육구원)
011-386-6239

◆ 천악기획

디자이너 구함

자격 - 크리스찬

- 일러스트/포토샵 가능자

문의 033) 255-5722

◆ 헌정경찰서 경곡실

행정간사구함

- 오전 10시 ~ 오후 4시

문의 033) 252-1717

공개구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께서 주신다." (잠언 19:14)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분들의 건전한 교제와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자리가 되는 공간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좋은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 256, 257-1260

010-3118-9355

행사안내

각 교회 및 단체에서 모든성도들이 함께 나눌 행사나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문의 : 256, 257-1260

010-3118-9355



춘천 의암리 기도원

부설 컴퓨터 양로원

정국성 목사



의암기도원전경



예배당



양로원 (1층중금)



휴식공간

예배안내

- 주간 집회
매주: 월~토요일 까지
시간: 새벽 6시, 낮 11시, 저녁 8시
- 목요 찬양집회 - 저녁 8시
- 금요 할아집회 - 금요일 밤 10시부터

실터양로원안내

- 노인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치매중증 등 몸이 불편하신분
- 시정심 가족이 오시기 힘든분
- 혼자 살고있는분
- 밀기밀원자 요양 및 기도생활

주소: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231-2 (의암달밭전소 의암유원지내)
전화: (033) 262-7923-4, 262-5694, 019-224-8796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

(주) 조양 의료기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비의 귀사문서 부착=온열매트
허리가 바로서야 건강하다=척추치료기
생명의물 알카리수=조양 이온수기

조양의료기 영월지점 (033-375-8275) 시외버스터미널 옆

대표 한 주 석 장로 (010-6381-6055)

♡ 제7기 선교서기관학교(MPS) 개강



매주 토요일마다 12주간 열리는 선교서기관학교는 9월11일(토) 오후3시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렸다. 조명준 목사의 사회와 정재호 목사의 기도, 최영조 목사의 설교말씀, 김중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이용남 선교사의 'Mission Acts'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였다.

♡ 선교대회를 위한 금요철야기도회



지난 9월 한 달간 춘천에 들렀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매주 금요일 9시30분에 정해진 교회(순복음춘천교회, 중앙성결교회, 동부장로교회, 중앙감리교회, 소양성결교회)로 다니면서 철야기도회로 모였다. 춘천선교대회를 통해 춘천을 거룩한 도시,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CBS 김진국 본부장 취임식

9월11일(토) 오전11시 CBS강당에서 새로 부임한 김진국 CBS본부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김동휘 목사의 사회, 취임증서 수여, 윤철중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김주환 목사의 축도로 취임예배를 마쳤다.

♡ 춘천기독교 수양관 개원예배

지난 9.18(토) 오전11시 춘천기독교수양관(춘천대 위 지암리) 개원예배 및 부흥사회 창립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다.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오승룡 목사의 축사와 순복음춘천교회 김주환 목사의 설교, 구리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김순호 목사의

♡ 제2회 강원도와 나라를 위한 조찬기도회



지난 9월7일(화) 오전7시 신성감리교회에서 시·군지역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국가조찬기도회가 열렸다. 본회 부회장이신 허종구 장로의 사회로 드린 기도회는 유진형 목사의 기도, 신경지 장로의 성경봉독, 그리고 '국가가 사는 길'이란 주제로 정근모 장로(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특강이 있었다. 또한 국가와 강원도의 번영과 민족복음화를 위해, 춘천성시화를 위해, 복음적 평화통일과 북한 동포를 위해 '특별합심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1회 헤브론컵 B그룹 전국 목회자 축구 선교대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주제로 지난 20일 수원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헤브론컵 B그룹 전국 목회자축구선교대회에서 춘천목회자축구선교단인 포이맨 축구단이 준우승을 하였다.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국에서 초청된 10개 팀이 3개 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거쳐 승자를 가렸다.

춘천 포이맨 축구단은 창단 4개월 된 신생팀으로 B그룹에 초청되어 충주, 안산팀과 함께 A조에 속하여 안산을 2:0으로, 충주를 3:0으로 누르고 준결승에서 서울 개혁팀을 3: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 충남팀과 야간 경기에서 포이맨의 합체진 선수의 신취골로 후반 종료 5분전까지 앞서가다 2:1

로 역전패 함으로 준우승에 머물게 되었다.

포이맨 축구선교단은 다음달 25-26일 열리는 A그룹 대회에 자동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외에도 포이맨은 모범상을 받았고 박문수 목사는 우수 선수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함께 누렸다.

포이맨 축구선교단은 춘천 지역의 목회자들로 구성된 축구 선교단으로 단장에 고영일 목사(푸른성령교회), 감독 김병천 목사(남산감리교회), 코치 박문수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와 30여명의 목회자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에 모여 실력과 친선을 다지고 있다. 관심있는 목회자들의 더 많은 참여를 통하여 축구 선교의 힘찬 발전을 기대해 본다.

♡ 2004춘천선교대의 설명회

9월24일(금) 오전7시 신성감리교회에서 춘천의 목회자와 장로들 약8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4 성시화를 위한 춘천선교대회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본대회 기간 동안

개최되는 행사(성시화포럼, 미술대전, 복음성가제, 바자회, 천선축구대회, 깨끗한 춘천 만들기, 청소년 천양제, 춘천연합천양축제)를 주관하는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나와 행사 취지 및 진행과정을 설명하였다.

기도, 지도위원 출신구 목사의 권면의 말씀과 총회신학장이신 강주원 목사의 격려사가 있었고, 한신장로교회 김유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추석노인잔치



9월24일(금) 낮 순복음춘천교회에서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과 순복음춘천교회 주변의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 이날 약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연주와 함께 식사제공을 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는 매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는 '혜민사랑의 집' 사역을 하고 있다.

♡ 전용태, 양인평, 이범찬 장로와의 만남



지난 9월24일(금) 오후6시30분 카페크리스찬에서 성시화운동본부가 상설기관으로 창립되고, 확산되는데 헌신하겠다는 전용태, 양인평, 이범찬 장로들과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임원, 홀리클럽 회원 및 성시화운동에 힘쓰시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모여 식사를 하며 춘천성시화를 위해 대화를 나눴다.



또 이날 저녁 9시30분 전용태, 양인평, 이범찬 장로 세 분은 춘천선교대회를 위한 금요철야기도회(중앙감리교회)에서 초청강사로서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였다.

"성령의 불길로 춘천을 인도하소서"

주요 성식재부

- 조식
- 떡
- 과일
- 음료
- 기타

대표이사 신종철
☎(033) 263-6903-4
춘천시외계로 665(화계동) 2층
E-mail: sun@ammi.org

젊은 그리스도인의 햇살같은 집

The House Like Sunshine For The Youthful Christian

www.saami.org / 262-7727 / H-P 010-6297-2644
016-777-1295

주소: 강원 춘천시 석사동
4/131-10 2층
운영: 젊은이들의 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로them의 집
The House of Rothem

사 설



“거짓을 구별하라!!”

박상호 목사

본지 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행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 주게 되면, 엉뚱한 방향, 엉뚱한 곳으로 가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는 수 년전에 의외의 실수를 했다. 아직 춘천 지역에 익숙지 못하던 시절, 어떤 분이 경침사로 가는 길을 묻는 것을 “다음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세요.”라고 가르쳐 주었다.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다음 사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좌회전해야 하지요.”라고 한다. 순간적으로 내가 착각한 것이다. 그분은 이미 차를 몰고 떠난 후이다.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는가?

오늘 우리는 거짓과 진리에 대한 잘못된 판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이 보수이고 무엇이 개혁인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종교계가 그러하고 나라의 정치계가 그러하니 국민들도 그러하다. 이제 우리는 침수하라고 시위를 벌이다가 오늘은 미군이 침수해서는 안 된다고 시위를 한다.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범죄라 경고하셨고, “우상숭배는 항상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가르쳐 왔는데, “부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연합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룬다.”는 기독교 지도자의 발언도 공공연하게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는 세상이 되었다.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과 10%는 진리이고 90%는 거짓인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위험할까? 아마도 90%는 진리이고 10%는 거짓인 것이 더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거짓은 진리의 옷으로 위장할 수 있다.

군인들은 인사할 때 거수경례를 한다. 거수경례의 기원은 중세 때에 찾을 수 있다. 헝가리에서 두 기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서로 마주치게 될 때 두 사람은 모두 한 손으로 면갑을 들어 올려 서로의 얼굴을 보이게 하여 “내가 누구입니다. 나는 경계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이것이 거수경례의 기원이 되었고, 따라서 이는 상대에게 자신의 신분을 진실하게 밝혀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것은 예의의 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서 왔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정보의 정확성, 거짓과 진실에의 판단, 자신을 밝히는 진실성에 대한 감정이 급증함을 느끼게 된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라 빛이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부터 거짓을 구별하고 자신을 소금으로 빛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금번 2004년 성시화를 위한 춘천성교대회는 거짓을 구별하고 진실된 구원의 정보를 제시하는 진실된 기독교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알려드려요

◆예수사랑운동

1) '순천선교대회 청소년 찬양제'

일시: 10월9일 오후4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2) 'Rise up 찬양대회'

일시: 10월30일 저녁6시30분(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장소: 춘천동부장로교회 소예배실

문의: 244-5400 / 019-538-3235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사랑방 훈련'

일시: 8월30일(월)~11월30일(화) 3개월간 장소: CCC회관

2) '동커뮤니티'

일시: 10월2일(토) 오후6시~12시 장소: CCC회관

문의: 254-5776 / 011-216-3621

◆예수전도단

1) '독서예수제자 훈련학교(REDTS)'

일시: 2004년9월3일~2005년2월12일

시간: 금요일 저녁 7시~10시 / 토요일 오후 3시~9시

대상: 만18세 이상의 그리스도인 직장인, 주부, 일반인

2) '모순됨을 위한 365 기도'

일시: 2004년10월15일~11월13일 라마단 기간

문의: 기도모임과 기도안내 책자견당2천원

252-1128 / 011-9490-6612

3) '재가 가정의 자녀들'

일시: 2004년10월16일(토)~2005년1월15일(토)

주제별 강의와 자유 캠프, youth 캠프, 전도여행으로 진행됨

대상: 만 7세~18세

문의: 252-2619/010-6696-5859(유경희 간사)

◆JDM

1) 'JDM 27주년 창립 감사대회'

일시: 10월2일(토) 오전 10시 장소: WDTI

2) 'WDTI 중공예식'

일시: 10월2일(토) 오후3시 장소: WDTI

3) '이사,간사 폐국연향식양회'

일시: 10월14일(목)~22일 문의: 252-3192/011-9068-3192

◆IVF

1) '후배가 제자학교 시작'

일시: 2004년 9월13일부터 10주간

내용: 제자도 및 합류와 삶에 대한 훈련

대상: 캠퍼스 2학년 대상

장소: 아시아선 교민

2) '마침사경회'

일시: 2004년 10월28일~29일 저녁7시

강사: 수원형제 침례교회 조경호 목사

장소: 한림대 사회과학관 강당

3) 중동선교사 세미나

일시: 2004년 10월26일 저녁7시

강사: 이성환 선교사 장소: 미정

◆어린이 전도팀

1) '2004년 후반기 새소식반(Good news club) 교사 강습회'

일시: 9월7일(화)~11월30일(화) 장소: 베드로성회외과5층 추수홀

강습회 시간: 낮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시

반반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30분

강습비: 2만원 (12회분) 핸드북, 특강교재 제공

(전도사직 교재 별도구입)

강의내용: 시각각과/성경교육/전도와 율동/요청충성교육/교사들을 위한 특강

2) '2004년 후반기 학교장 지도'

교회학교 선생님과 함께 전도한 후 교회로 인도하는 프로그램

일시: 2004년 9월9일(목)~11월25일(목)

전도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2시~4시

교사전도 훈련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2시 (전도도우-금요일은백)

장소: 9월9일 부안초등/16일 후평초등/23일 동부초등/30일 남부초등

문의: 033-253-1443

◆베드로선교센터

1) 'MPS(성교개척학교)'

일시: 9월11일(토)~11월27일(토)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3~7시

장소: 베드로성회외과5층 추수홀

문의: 253-3399/019-9903-1148

◆ANI (All Nations' Intercessors) 중보기도학교

일시: 2004년 9월2일(목)~11월25일(목)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10시 30분 장소: 베드로선교센터5층 추수홀

문의: 018-264-8917/018-203-8917 www.anipraya.org

◆인도 비하르 선교여행(ccf 주최)

일시: 11월1일(월)~11월8일(화)

목적: 인도 비하르 가나만 농군학교 설립 등

문의: 이상용 전도사 016-226-9164

◆아바의 집(Abba House)

'제가 Mission Study Trip(선교실습생)'을 모집

일시: 2005년 1월 10일 출발 전매추선교의 선교지에 대한 공부 및 기도회

AH의 지원서 접수: 10월22일까지 http://cafe.daum.net/abbahouse

문의: 033-243-0691, 019-9224-0690

◆GBT 성경번역선교회 위클리프스쿨

2004년 가을학기 Wylliffe School (하나넬의 사랑할 모든 언어로)

일시: 2004년 9월25일~12월13일 10주간매주 월요일 오후7~9시

장소: 은외동 예담교회

대상: 선교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청년, 일반인 등. 목회자

주최: GBT 성경번역선교회 춘천지부 http://www.gbt.or.kr

문의: 이희영 011-9791-1367

<성시화 후원자 명단>

후원계좌: 농협 203-02-280238 조남진
조흥 716-01-001389 조남진
국민 301-01-0586-522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니다)

남춘천김리교회	늘사랑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랑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사랑의침례교회	열린교회
사우동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성결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동부교회	천일현수막
앤투어	김길홍
김현철	김영명
민병업	박동환
성기은	신성균
신종철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이용규
이판호	이학규
유근창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 聖地로익 특별한 초대 †

♥ 성지 순례
♥ 단기 선교

♥ 여권 비자
♥ 항공 발권

성지순례 프로그램 센터 강원지부



우리여행클럽

☎ 242-6400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033-242-5573

018-330-0433

1 OFFICE: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춘천시 서면 남평 1리 81-5